

추신수 '100-100 클럽' ML데뷔 9시즌만에 100번 넘기고 101번 홈쳤다

카디널스 전 올시즌 17호 포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가 호타준족의 상징인 '100홈런-100도루' 클럽에 가입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메이저리그 통산 99홈런 101도루를 기록 중인 추신수는 28일(한국시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경기에서 신시내티가 0-2로 뒤지던 5회 우월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이로써 추신수는 올 시즌 17번째이자 메이저리그 통산 100번째 홈런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100홈런-100 도루의 금자탑도 쌓았다. 2005년 시애틀 매리너스에서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이후 9시즌 만의 일이다.

100홈런-100 도루는 힘과 주루 센스를 모두 갖춘 타자라야 낼 수 있는 성적이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의 통계에 따르면 이날 두 차례나 아치를 그려 통산 101호 홈런을 기록한 세인 빅토리오(보스턴·도루 218개)에 이어 추신수는 현역 선수 가운데 40번째로 100-100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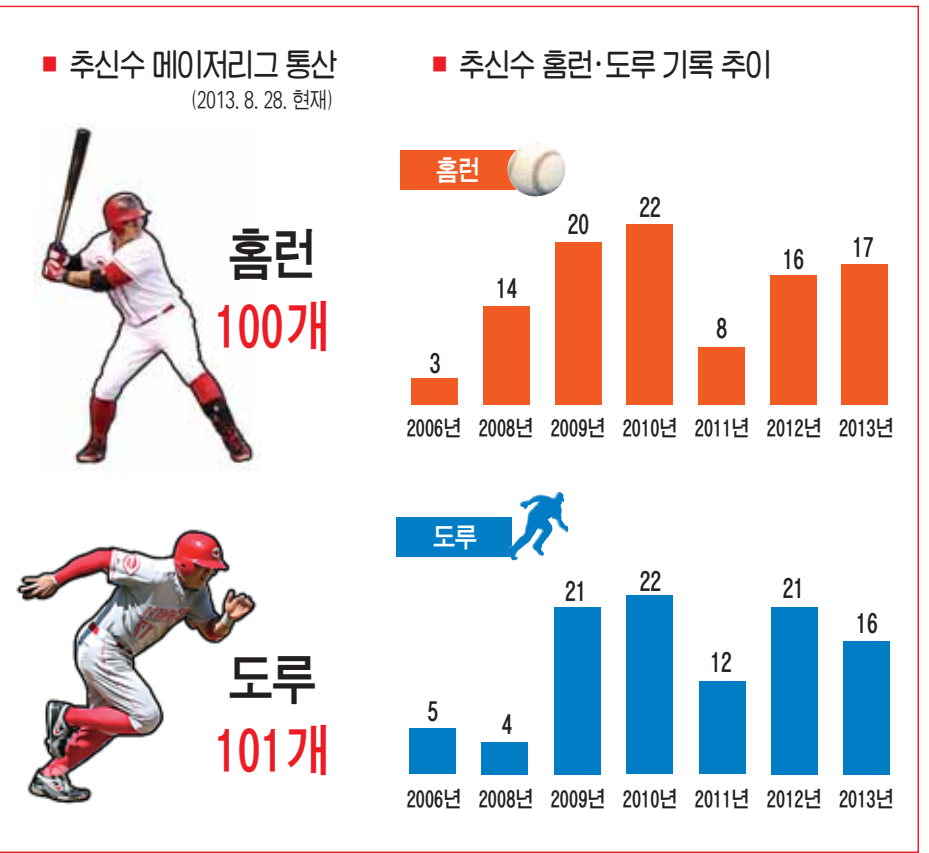
그러나 최근 메이저리그 현역 활동이 거의 없는 선수를 제외해 통계를 작성한 '베이스볼 레퍼터리'에 따르면 추신수는 현역 선수 중 31번째에 해당한다. 아시아 출신 선수 중에서는 뉴욕 양키스의 일본인 스키이치로(110홈런 470 도루)에 이어 추신수가



두 번째로 100홈런-100 도루에 성공했다. 2000년 시애틀과 계약해 미국 땅을 밟은 추신수는 마이너리그를 거쳐 2005년 빅리그에 올랐다. 2006년 클리블랜드로 팀을 옮긴 추신수는 같은 해 7월 29일 친정팀 시애틀과의 홈경기에서 상대 선발 펠릭스 에르난데스로부터 좌중간 솔로포를 터뜨려 빅리그 데뷔 15경기 만에 첫 홈런 맛을 봤다.

2006년 세 개의 홈런을 터뜨린 그는 2007년에는 왼쪽 팔꿈치 수술로 빅리그에서 단 6경기만을 뛰며 홈런없이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풀타이머 메이저리거로서 입지를 다지기 시작한 2008년에 데뷔 이래 처음으로 두자릿수 홈런(14개)을 터뜨리며 숨어



있던 거포로서의 능력을 드러냈다. 2009년(20홈런 21도루)과 2010년(22홈런 22도루)에는 3할 타율에 20홈런-20도루 이상을 기록하며 맹활약했다. 2011년에는 음주운전 과문과 부상 등으로 8홈런 12도루에 그쳤지만 지난해 16개의 홈런을 쳐내고 21차례 도루에 성공하며 제 기량을 되찾

다. 추신수는 올해까지 다섯 시즌 연속 두자릿수 도루를 기록했다. 올 시즌에는 장타력에 정확성, 빠른 발 등 자신의 재능을 유감없이 과시하며 리그를 대표하는 톱타자로서 자리를 굳힌 그는 벌써 17홈런 16도루를 기록해 통산 세 번째 20-20 클럽 가입도 노려볼 만 상황이다. 추신수는 올 시즌이 끝나면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다. 올해 같은 활약이라면 추신수는 거액의 몸값을 받고 새 팀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추신수는 2010시즌 종료 후 처음 연봉조정 신청 자격을 얻어 397만5000달러에 클리블랜드와 재계약했다. 2011년에는 다시 연봉조정 절차를 밟아 2012년 연봉으로 490만 달러를 받아냈다. 신시내티로 등지를 옮긴 올해 다시 한번 연봉 조정을 신청한 끝에 737만5000달러 짜리 계약서에 사인했다. 이제는 '100홈런-100도루'라는 날개까지 더한 추신수의 고공비행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을 끈다. /연합뉴스



류현진 13승 재도전

31일 오전 샌디에이고전 선발 등판

메이저리그 데뷔 첫 연패에 빠진 류현진(26·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13승을 향한 재도전에 나선다.

류현진은 31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11시 10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한다.

류현진은 지난 25일 보스턴전에서 5이닝 4실점으로 시즌 5패(12승)째를 떠안았다. 메이저리그 진출 후 처음으로 3점 홈런을 얻어맞았고,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이어 온 '캘리포니아 스타트'(선발 등판해 6이닝 이상 투구, 3자책점 이하) 행진도 끊겼다.

특히 20일 마이애미전에 이어 연달아 패전 투수가 되면서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처음으로 연패에 빠졌다. /연합뉴스

셀비 밀러(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호세 페르난데스(마이애미 말린스) 등과 벌이는 신인왕 경쟁에서도 한 발짝 뒤처졌다는 평가가 많다.

샌디에이고는 같은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소속 팀이지만 류현진으로는 처음으로 상대하는 팀이다. 팀 타율(0.246)이나 팀 홈런(118개)을 비롯한 대부분 타격 지표에서 내셔널리그 10위권 정도를 달리고 있다.

좌완 투수 상대 타율 0.365로 강한 면모를 보인 올스타 유격수 에버스 카브레라가 약물 스캔들로 출전 정지를 당했다는 점도 류현진의 어깨를 가볍게 한다. 왼손 투수에게만 9개의 홈런을 빼앗은 크리스 데노프리아 정도만 조심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 선발투수인 에릭 스티브즈(34)는 빅리그 7년차인 올해 27경기에 선발 등판, 8승11패와 평균자책점 3.72를 기록 중이다. /연합뉴스



훈련·경기·재활 '원스톱'... 명가재전 시작됐다

KIA 함평 전용 연습장 '챌린저스 필드' 개관

250억 투입... 클럽하우스·웨이트실 등 갖춰 2·3군 선수단 입주, 유망주 발굴·육성에 만전



클럽하우스 전경



클럽하우스 리커름

장 등 경기장 완공 이후 클럽하우스까지 개장하면서 '회수분 야구'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함평에 있는 전남 야구경기장을 사용했던 KIA는 올 시즌부터는 최첨단 시설의 함평 전용연습장에서 2군 경기를 치르고 있다. 또 광주를 오가며 훈련을 해왔던 2·3군 선수단은 클럽하우스가 완공되면서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현재 35명의 선수가 클럽하우스에 입주해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챌린저스 필드는 메인구장(4600평·좌우 100m, 중앙 120m), 보조구장(1300평·좌우 60m, 중앙 63m), 운영관(400여평), 클럽하우스, 실내연습장으로 구성됐다. 클럽하우스(1120평·20실)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타이거즈를 상징하는 'T' 모양으로 형성됐다. 1층에는 식당, 웨이트실, 물리치료실, 트레이닝실, 사우나실이 위치했다. 2층에는 20실(2인1실)을 비롯한 휴게실, 전략회의실, 세탁 및 건조실 등이 완비되어 있다. 실내연습장은 가로 50m, 세로 50m, 높



실내 연습장



웨이트실

인과 미학의 개념을 담아 선수들이 명문구단 소속원으로 자부심을 느끼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조용하고 훈련을 위한 최적의 시설로 구성되어 있는 이곳에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유망주에 대한 집중 발굴과 육성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함평=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전 5할 타율 자랑하는 롯데 손아섭 "KIA에서 벌여 NC에서 깎여요"

프로야구 말 말 말

▲야수들이 오늘은 이겨야 한다. 바짝 붙어=서재응, 훈련을 앞둔 후배들을 향해, 타석에 바짝 붙어서 승부를 하는 게 오늘의 핵심 전략이라며.

▲우와 '까지'다. 오늘 이겼다=27일 김경수 투수 코치가 특타조에게 배팅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본 투수들, 까치가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라면서, 김 코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KIA는 이날 불펜의 난조로 2-7로 패했다.

▲설날 되려면 멀었는데=신승현, 까치 얘기가 나오자 혼잣말로.

▲자기보다 승(勝) 적은 애는 앞으로 가서 앉으라=임준섭을 놀리고 있던 이범호, 윤석민이 덕아웃으로 나오자, 임준섭은 지난 25일 넥센전에서 시즌 3승째를 수확했다. 초반 부상으로 고전하다 마무리로 돌아선 윤석민은 2승을 기록하고 있다.

▲할수록 어려워요=임준섭 승리투수가 되는 게 어렵다면서.

▲신발 버리신 거죠? =김경진 매니저, 최향남이 원정 숙소에 신발을 두고 와서 택배가 왔더라며.

▲선발 투수야=선동열 감독, 윤석민이 마무리인데 팀이 이기지 못해서 선발 로테이션으로 등판하고 있다며.

▲잘 쉬었나? =선동열 감독, 선수단에 재합류한 김진우가 인사를 하자, 김진우는 앞서 베이스 커버를 들어가다 넘어지면서 우측 어깨 타박상으로 엔트리가 말소됐었다.

▲평균로 죽여주라고 그랬지 =이순철 수석코치, 두산 지명을 받은 아들(이성근)이 야기가 나오자, 수비가 좋지 않으니가 훈련 많이 시켜주라고 부탁했다며.

▲너 너무 치는 것 아니냐? =김주형, 롯데의 손아섭을 보고, 손아섭은 27일 경기에서 3개의 안타를 때려내며 KIA전 0.553의 타율을 기록했다.

▲KIA에서 벌어서 NC에서 깎아요=손아섭, KIA전 5할 타율이 넘지만 NC전 타율이 1할대(0.182)라며, 28일 경기전까지 손아섭의 올 시즌 타율은 0.352였다. /김여울기자 wool@